

# 나주 “문화로 행복을 배달합니다”

문화소의 아동·고령 주민 대상 ‘이야기 할머니’·‘전래놀이’ 등 청년단체와 협업 영화 상영도



나주 이야기 할머니가 유치원을 찾아 나주의 옛 설화를 들려주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다채로운 문화 시책으로 주민 일상에 소소한 행복을 더해주고 있다. 나주 역사에 얽힌 옛이야기, 잊혀져 가는 전래놀이, 벽지마을 영화 상영, 예술단 공연에 이르기까지 나주시에서 양성한 문화 전도사들이 문화 행복 보따리를 안고 각계각층 시민을 찾아가고 있다.

30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의 일상 문화 향유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문화행복 배달 키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연령, 지역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소외지역 아동, 고령 주민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나주 이야기 할머니”, “신나는 전래놀이”, “찾아가는 영화관”, “시립예술단 공연” 등 세대·지역별 맞춤형 문화 시책을 직접 찾아가 제공한다.

나주시 문화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한 이야기 할머니들은 유치원, 초등학교를 찾아 나주의 옛 설화를 들려준다.

오랜 세월이 축적된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후손들을 위한 지혜의 창고다. ‘나대용 장군’, ‘왕건과 버들잎’, ‘잃어버린 금동신발을 찾아

서’ 등 나주 옛 역사를 아동 눈높이에 맞춰 흥미로운 동화 이야기로 풀어낸다.

한평생 극장 근처도 못가 본 벽·오지 마을 어르신들에게는 영화 감상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청년 활동단체와 협업을 통해 마을회관,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소규모 영상 시설을 설치해 연 40회 주민들이 원하는 영화를 상영한다. 나주시가 문화인력으로 양성한 전래놀이 지도자들은 휴대폰, 디지털 기기 등이 문화에 익숙한 아동, 학생들에게 건전한 놀이 문화를 보급한다.

나주시전래놀이연구회 ‘솔레’ 소속 지도사들은 올해 170회에 걸쳐 보육시설, 경로당 등을 찾아 공동체, 협동의 미덕을 알리는 다양한 전래놀이를 배달한다. 시립합창단, 국악단, 소년

소녀합창단으로 구성된 나주시립예술단도 마을회관, 경로당, 문화센터, 각급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펼친다.

예술단 공연은 조명이 비치는 무대에 국한하지 않고 객석과의 경계를 허문다. 시민들은 굳이 공연장을 찾지 않더라도 일상 공간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 행복지수를 높인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문화는 오늘날 기쁨과 자유의 도구로 소외감을 느끼는 주민들에게 크나큰 위로의 선물이 된다”며 “시민의 일상 행복을 위해 분주히 발로 뛰는 문화 배달부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나주시 문화행복 배달키움 사업 사전 신청 및 문의는 시청 문화예술과 또는 사업별 추진 업체로 하면 된다. /나주시·이재순 기자

## 화순, 벼 육묘상자 자동이송장치 보급

노동력·시간 대폭 감소

화순군이 벼농사에서 노동력이 가장 많이 드는 못자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벼 육묘상자 자동이송장치를 설치해 호응을 받고 있다.

30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이서면 야사리 일원에 농촌진흥청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인 ‘벼 육묘이양 자동화 단지조성 시범사업’으로 벼 육묘상자 자동이송장치를 설치했다.

자동이송장치 기계는 레일에 육묘상자를 올려놓으면 자동 이송돼 원하는 위치에 내

려놓기만 하면 된다. 일일이 인력으로 모판을 옮겨 나르던 관행 대비 노동력과 시간에 60%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농협 관계자는 “모판 치상작업과 출하작업이 훨씬 수월해졌다”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극 도입으로 농작업 생력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벼농사 기계화율이 93%로 높은 수준이지만 못자리에서만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며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생력화 농기계 및 재배기술을 적극 확대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이종백 기자

## 영암 매일시장 특화상점가 입주자 선정

4명 가게 리모델링 후 영업

영암군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하나로 영암읍 매일시장 먹거리 특화상점가 입주자 평가를 열고, 4명의 입주자를 최종 선정했다.

30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매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이라는 의미를 담은 ‘S.M.A.R.T.로 재탄생하는 영암’을 구호로 내건 ‘영암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도비 88억원을 포함해 총 168억 원을 들여 어울림복합센터·새싹돌봄센터·특화상점가를 조성하고, 노후 집수리 같은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관련 사업의 하나로 영암읍 매일시장 특화상점가 입주자를 선정하는 평가회가 있었다.

영암군은 사전 모집에 참여한 입주후보자를 대상으로 입주자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평가회는 서류평가와 시식평가를 거쳐 최종 입주자를 선발했다. 심사위원들은 평가회에서 입주후보자들이 만든 음식을 맛보고 차림과 가격 등을 토대로 채점에 나섰다.

나이가 음식에 대한 개선점과 응용 메뉴 개발에 대한 의견도 입주 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 최종 입주자로 선정된 4명은 가게 리모델링 공사 후 입주해 영업에 들어간다.

영암군 관계자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공은 주민참여에 있고, 특화상점가 입주자들이 그 한 축을 담당해줄 것이다”며 “선정된 입주자들이 주변 가게와 차별화된 음식 차림으로 매일시장과 영암읍 중심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 영광, 참조기 양식산업화 센터 건립 추진

사업 편입 토지 소유자와 협약

영광군은 30일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6일 사업 편입토지 소유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사업 대상 부지 소유자인 강영원, 강창원씨가 참석해 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에 적극 협조하고 사업 편입 토지 매각·매입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는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으로 영광군이 최종 선정돼 사업비 160억원을 확보했으며, 현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완료하고 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영광군은 올해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4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해



영광군은 최근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사업 편입 토지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했다. /영광군 제공

2025년에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2026년에는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영광군 굴비산업과 수산

업 발전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린 토지 소유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곽용순 기자

## 함평,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점검률 62%... 내달 16일까지

함평군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2023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함평군은 30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6월 16일까지 실시하는 집중안전점검에 대한 각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이병용 부군수 주재로 진행됐으며, 집중안전점검 시설물 소관 부서 팀장 등이 추진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점검대상 시설물은 교량, 저수지, 하천, 캠핑 시설 등 민간시설물과 공공시설물 총 53개 시설물로 11개 실과소가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53개 시설물 중 33개 시설물 점검

을 완료해 점검률은 전국 평균 21%를 훨씬 웃도는 62%를 기록했다. 나머지 20개 시설물은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설물 점검에는 함평군 안전관리자문단, 유관기관 등 안전점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예산 소요 시에는 사업비를 확보해 보완할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등록된 시설물 외 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을 추가 발굴해 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군민이 안전한 함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군민이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점검표를 5월 반상회 시 각 가정에 배부할 계획이다. /함평=윤예중 기자

## 클릭! 고향 속으로



### 영광, 비만 예방 합동 캠페인

영광군이 ‘가볍게, 일상에서 걷고, 물을 마시고, 나트륨과 지방을 줄이자’라는 슬로건으로 비만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30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영광군이 합동으로 비만예방의 필요성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해 진행했다.

이와 함께 비만예방 뿐만 아니라

건강생활실천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군민들이 비만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건강생활실천을 스스로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곽용순 기자



### 홍종열페이컴즈 대표, 장흥에 500만원 기부

㈜페이컴즈 홍종열 대표가 장흥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30일 장흥군에 따르면 홍 대표는 장흥중 출신으로 고등학교때부터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알려졌다. 현재는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금 체불 방지 서비인 클린페이를 출시해 현행 대금

지급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홍종열 대표는 “이번 장흥 방문을 통해 고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부했다”고 말했다.

김성 군수는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홍종열 대표께서 고향을 위해 기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 함평 나산면, 환경정화 활동

함평군 나산면 주민들이 나산강변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30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 활동에는 나산면 청년회, 번영회, 이장협의회, 노인일자리 어르신 등 각계각층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나산강변 가족나들이공원추진위원회가 나산강변 둔치 4,700㎡ 면적에 코스모스 밭을

조성했다.

또, 코스모스 생육을 위해 노인일자리 어르신 90여 명이 코스모스밭 잡초 제거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정화자 나산면장은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애써 준 어르신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